

한국의 아시아 미술 컬렉션과 전시

민병훈

I. 導論

II. 아시아 미술 컬렉션

1. 국립중앙박물관의 컬렉션과 전시
2. 사립박물관의 컬렉션과 전시

III. 아시아 미술 전시

1.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2. 지방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기획전시
3. 기타 전시

IV. 전시도록

1. 문화권 소개 및 문화교류 전시
2. 국가별 문화 소개 전시
3. 지역문화 소개 전시
4. 특정 주제별 전시
5. 컬렉션 소개 전시

V. 結語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주요 논저

「천산 위구르 왕국과 베제클릭 석굴」(2007), 「중앙아시아의 소그드 문화」(2009), 「異宗教間の 齟齬과 共存-조로아스터敎와 佛敎를 중심으로-」(2009), 「실크로드와 동서문화 교류」(2010), 「무령왕릉의 鎭墓獸와 그리핀」(2011), 「투르판 아스타나 출토 鎭墓獸攷」(2011), 「이슬람 글라스의 탄생과 확산」(2012)

한국의 아시아 미술 컬렉션과 전시

閔丙勳

I. 導論

전근대의 한국문화를 논할 때, 흔히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환으로, 유교문화와 불교문화 그리고 한자문화라는 동질성 내에서 그 문화를 폐쇄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중국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하여 중국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표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 아시아라는 역사세계에 병존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속성과 그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거의 몰이해에 가까운 기형적 문화인식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교육현장이나 학계의 이와 같은 절름발이식 아시아관은 현행의 왜곡된 역사교육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의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국 일변도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곧 아시아 역사와 문화 이해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술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 미술사는 아시아에 비견할 만한 대상이 없는 유일한 대표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변도의 역사서술 역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은 다루어지지 않은 채, 화북지역에 치우친 왕조사의 나열이라는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아시아 문화 이해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현상은 우리가 중국 주변의 제 문화권의 이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한문사료로 대변되는 왜곡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과거의 역사연구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방의 유목문화권, 서·중앙아시아 오아시스문화권, 남아시아 해양문화권이 라는 독립되고 완결된 역사세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 제 문화권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에 입각한 아시아문화의 거시적 조감은 과거에 있어서나 현행의 교육 현장 및 문화 현장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재 가운데 서양사 서술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아시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역사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다원성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아시아라

는 역사세계는 민족적으로나 언어·종교라는 점에서 一元의 세계로 파악할 수 있는 서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다양성을 지닌 역사세계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도 근자에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지역학회가 다수 성립되어, 현지 언어로 기록된 역사자료와 출토자료를 제1차 사료로 취급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문화 이해의 균형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에 창립된 한국 중앙아시아학회를 비롯하여 중동학회, 이슬람학회, 동남아시아학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전문학회에 소속된 인력이 학계에서의 활약은 물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을 주지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¹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은 무엇보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문화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약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구 러시아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제 국가군과의 국교수립이라는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들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제고되었다.²

이로 인하여 국내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국공립박물관은 중국의 국가박물관을 비롯한 각 지역의 대표 박물관 등과 활발한 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중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북방의 내몽골과 동북지방의 요녕성을 비롯하여 남방의 운남, 서방의 티베트,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토 조건 하에서 배양된 판이한 성격의 중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한 것이 2005년 10월 서울 용산에서 신축개관을 맞이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관 신설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시아관이 독립된 영역으로 신설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주변 문화권과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현상을 상설전시나 특별전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에 병존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물론, 한국문화를 이러한 문화교류의 흐름에 실어 이를 거시적으로 조감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과거 중앙청 시절, 즉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건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대대적

1 한국 중앙아시아학회의 창립과 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權寧弼, 「韓國의 中央아시아 考古學·美術史 研究 -그 出發에서 現在까지-, 『中央아시아研究』 第6號(2001. 12) 참조.

2 2007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앙아 포럼(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의 제2차 포럼(2008. 12. 9-12, 10)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문화협력 방안이 별도의 주제로 선정되어, 양 지역 박물관 등 문화관계 인사들 사이에 공동 조사연구, 전시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으로 개수하여 이전·개관하였던 1986년도에도 부분적으로는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실이 개설된 바 있다.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되어 일제 강점기 동안 경복궁 내 修政殿에서 전시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유물, 즉 오타니 컬렉션 중 소량이 해방 이후 현재의 덕수궁 본관과 민속박물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 전시된 적도 있었으나, 1986년도의 이전·개관을 맞이하여 박물관 4층 서측에 중앙아시아실을 신설함으로써 벽화와 다양한 출토유물의 대표작품을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실 역시 동경국립박물관의 유물을 차용하여 처음으로 신설하였으나, 두 전시실 모두 중앙청 건물의 철거와 함께 경복궁 서문 입구에 신설한 작은 규모의 새 박물관 건물(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로 이전·개관할 때 전시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다시 폐쇄되고 말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시대를 맞이하여 신설한 아시아관은 국립박물관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문화재 전문 전시실의 확보라는 점 이외에도, 효율적인 개관 준비를 위하여 전시실 별로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개관에 임하였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신설된 아시아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유 컬렉션인 중앙아시아 유물, 신안해저유물, 일본 근대미술품, 중국 유물 등을 중심으로, 인도·동남아시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신안해저유물실, 일본실로 구성되었다.

개관에 즈음하여 자체 컬렉션이 부족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교섭하여 그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통사적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전시유물 확보와 다양한 테마전시를 가능하게 하였던 결정적인 조력자는 다름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증이었다. 특히 일본 요코하마 거주 가네코 카즈시게(金子量重) 선생이 아시아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고·미술·민속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전시의 질적 향상을 초래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개관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구입에 있어서도 한국 유물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시아 미술품에 대한 국내의 구입을 추진함으로써 전시 유물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도 구미의 국제경매에서 구입한 인도와 간다라 불교조각 명품을 기증하는 등 조직적인 보완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관 전후의 정황 아래, 아시아 미술 전시를 위한 조직의 신설과 전문인력이 충원되며 아시아 미술 자체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별전과 테마전시를 지속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도·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인적·학술교류를 병행하며, 현지 조사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해당국가의 국립박물관 등의 소장품을 반입하여 다양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하,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 미술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아시아 미술 소장품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더불어, 근년의 특별전시·테마전시 등 관련전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경향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II. 아시아 미술 컬렉션

1. 국립중앙박물관의 컬렉션과 전시

1) 중앙아시아 컬렉션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화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와 영국을 비롯하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이 지역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정치·군사적 목적의 탐험대를 앞다투어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타림분지의 사막지대에서 고문서를 비롯한 유기질재 출토유물이 학계에 보고되며 그 학술적 가치가 판명되자, 중앙아시아 탐험은 점차 지리·역사학적 규명을 목적으로 한 학술탐험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갔다.³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당시 런던에 체류하고 있었던 일본 교토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제22대 문주 오타니 코즈이(大谷光瑞)는 귀로에 불교 동점의 중요 경로였던 서역지방을 직접 답사하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사적 탐험대를 추가 파견하였다.⁴ 1902년부터 1914년까지 행하여진 오타니 탐험대의 서역 탐험조사의 구체적인 行程은 『西域考古圖譜』(東京: 國華社, 1915)에 상세하다. 그러나 오타니 탐험대가 서구열강의 그것과는 달리 개인적인 탐험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결국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코즈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문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탐험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한 유물 역시 채 정리가 되기도 전에 분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즈이가 중국 旅順에 은거하며 당시 지참했던 관련유물은 현재 중국 大連市 여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동경국립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이관된 이들 유물은 경복궁의 수정전을 상설전시실로 하여 해방 때까지 계속 전시되고 있었다.⁵ 석굴사원의 벽화를 비롯하여, 사막지대 오아시스 주민의 다양한 생활용품, 고묘에 매장되었던 부장품 등 약 2,000점에 이르는 이들 유물은 해방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여타 국보급 유물들과 함께 안전하게 소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강의 탐험 경위와 학술성공에 대해서는 즐고, 「中央아시아 探險史」, 『실�크로드 美術』(서울: 韓國博物館會, 1991) 참조.

4 오타니 탐험대의 서역지방 조사의 경위에 대해서는 즐고, 위의 논문 참조.

5 서역유물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반입 경위와 그 후의 전시·조사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즐고,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央아시아 遺物の 所藏經緯와 展示·調査研究 現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서울: 한국박물관회, 2003) 참조. [동저, 「韓國における大谷コレクションの展示および調査研究の現況」, 『東洋文化研究』 第8號(2006. 3)는 本稿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중국 新疆文物考古研究所 간행의 『新疆文物』(2007年 第1期)에 게재된 「韓國大谷藏品の展示及調査研究現況」은 『東洋文化研究』의 논고를 同研究所의 于志勇이 번역한 것이다.]



도 1. 《壁畫供養菩薩像》, 투르판 베제클릭 석굴, 10~12세기, 116.5×75.0cm, 국립중앙박물관(본4092)

이들 유물은 경북궁에 신축된 국립중앙박물관(현재의 국립민속박물관)의 개관을 계기로 1974년에 경주에서 서울로 반입되었으며, 당시 동양실에 일부 유물이 진열되기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86년의 이전·개관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실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간행되었던 『中央아시아美術』(1986. 8)은 중앙아시아 유물의 중요 작품을 갈라 도판으로 소개하고 한국 학자에 의한 해설이 첨부된 최초의 도록이다.

이후 필자를 비롯한 중앙아시아학회 소속 학자들의 계속된 현지조사 및 현지학자들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용산으로의 이전·개관을 앞두고 신설될 아시아관의 전시를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 전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일한 명칭의 도록도 발행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 Arts of Central Asia』(2003)]. 이는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행하여진 발굴성

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유물 조사와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치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조사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학의 수준을 대내외에 현시한 성격의 전시이기도 하였다.

이어서 2005년의 개관에 즈음하여 간행된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2005)는 각 전시실별 도록 가운데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관련유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필하여 재판집한 것이다.

개관 이후, 중앙아시아 컬렉션의 분야별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상설전시를 지속하는 한편, 2006년에는 소장품 가운데 투르판과 쿠차 지역의 석굴사원에서 가져온 불화의 천불도를 테마로 한 작은 규모의 전시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벽화”를 개최하여, 불교동점의 과정에 나타나는 천불도의 의미와 석굴사원 내부에 장엄된 천불도의 도상적 특징 및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2006)].

이러한 전시활동과 더불어 중국 신강지역의 박물관이나 문물국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조사나 공동연



도 2. 〈天部陶像〉, 투르판 무르투, 6~7세기, 43.0×21.0cm, 국립중앙박물관(K980)



도 3. 〈伏羲女媧圖〉, 투르판 아스타나 고분, 7세기, 189.0×79.0cm, 국립중앙박물관(본4027)

구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의 학자를 초빙하여 석굴사원 보존을 위한 장기 연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소장 유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투르판 문물국과의 공동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의 신축개관을 계기로 2001년부터 중앙아시아 벽화 보존처리 작업에 착수하여, 탐험 종료 후 나무액자 틀 내부에 고정시켜 두었던 벽화를 전시와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최신의 기법으로 재보존처리함과 동시에, X선 형광분석(XRF)과 가속질량분석(AMS) 등 첨단 과학기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벽화의 정확한 조성 연대 비정이나 안료 분석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 일본 근대미술품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일본 근대미술품 198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소장품은 일본화 93점, 서양화 37점, 판화 4점, 조각 20점, 공예 4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8년 조선총독부는 창경궁의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을 덕수궁의 신축 미술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1933년부터 같은 덕수궁 내의 석조전에서 꾸려왔던 일본 근대미술 전시를 이왕가박물관 소장품과 결합하여 '이왕가미술관'이란

이름의 식민지 미술관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그리고 1945년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본 근대미술품을 정략적으로 구입하여 전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사회와 미술계에 일본 근대미술의 우월성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⁶

이들 작품은 상술했던 중앙아시아 유물과 함께 1945년의 일본 패망 이후에도 한국 국립박물관 소유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 미술품은 그 대부분이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한 것이 많아, 그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 근대미술사의 거장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이들 작품이 거의 공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작품의 보존상태 또한 훌륭하다. 특히 이들 작품 가운데 공예품은, 제작연대로 살펴볼 경우 일



도 4. 고이소 료헤이(小磯良平), 〈일본식 머리를 한 여인〉, 1935년, 유화, 166.7×136.3cm, 국립중앙박물관(근대26)



도 5. 미키 스이잔(三木翠山), 〈눈 내린 아침〉, 1934년, 견본채색, 202.5×189.0cm, 국립중앙박물관(근대232)

⁶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 근대미술품의 소장 경위와 이왕가미술관의 설립배경 등에 대해서는, 李龜烈, 「국립중앙박물관의 일본 근대미술 컬렉션」,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 日本畫篇』(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1), 이왕가미술관의 일본미술품 진열과정과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김승희, 「덕수궁 석조전의 일본 근대미술 전시」,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서울: 한국박물관회, 2002) 참조.



도 6.
 마쓰다 곤로쿠(松田權六), 〈대나무 백로무늬 칠함〉,
 1936년, 칠, 높이 24.0cm, 국립중앙박물관(근대34)

종의 공백기로 여겨질 정도로 일본에 해당시기의 작품이 없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⁷ 따라서 이들 작품은 당시 일본의 작가들이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도 필사적으로 근대미술을 수용하여 이를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전환기의 가치관이 반영된 수작들이기 때문에, 일본미술계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타임캡슐과도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박물관 신축 이전·개관을 앞둔 2001년에는 이들 작품 가운데 일본화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조사 연구 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 — 日本畫篇』(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1)이 간행되었으며, 그 다음 해 10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 전시가 개최되어 같은 이름의 도록 역시 특별전의 개막과 동시에 간행되었다(『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한국박물관회, 2002)). 이 전시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 동경예술대학 미술관과 교토 국립근대미술관에서도 한국의 전시와 동일한 명칭으로 순회 개최된 바 있다(『韓國國立中央博物館所藏 — 日本近代美術展』(京都國立近代美術館 편, 京都: NHK·朝日新聞社, 2003)).

2005년의 신축이전 개관에 즈음하여 발행한 도록 『일본미술』(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예맥출판사, 2005)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의 명품과 저가의 구입 유물, 그리고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차용한 고고유물, 불교관련 유물, 공예품 등이 망라되어 있다. 2007년에 간행된 도록 『일본근대미술』(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예맥출판사, 2007)은 동경국립박물관의 차용유물을 반환한 후, 국립중

7 竹内順一, 「日本近代工藝の概観-實用と藝術の間」, 『韓國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展』(京都: NHK·朝日新聞社, 2003).

양박물관의 일본 근대미술품만으로 전시실을 개편하며 발행한 것이다.

한편 소장품에 대한 정리와 연구를 병행하며 그 성과를 반영한 작은 규모의 테마전시 개최와 함께, 관련 전시도록 『일본미술의 복고풍』(2008), 『일본 근대 서양화』(2008)도 발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소장품 가운데 서양화에 대한 조사연구 내용을 정리한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日本近代美術 — 西洋畫篇』(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이 간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조각과 공예품을 정리한 공예편을 간행하여 일본근대미술 컬렉션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총집성할 예정이다.

3) 신안 해저 유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는 교역과 문화전파의 가교로서 세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육상의 실크로드(오아시스 루트)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특히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흔히 '도자의 길(ceramic road)' 이라고도 부른다.

중국의 元代(1271~1368)에는 서아시아의 이슬람제국에 이르기까지 해상교역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으며, 당시 서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의 동남해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바닷길은 한국과 일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1323년 중국의 慶元(지금의 寧波) 항구에서 도자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품을 싣고 일본 교토로 향하던 국제 무역선이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가, 1975년 한 어부에 의해 청자화병이 발견되면서 650여년의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⁸

'新安船' 이라고 불리는 이 침몰선의 인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바닷길을 통한 대외교류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완도, 도리포, 비안도, 태안반도 등지에서 수중발굴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바닷길의 의미를 범아시아적인 교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안선 발굴유물은 당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의 실상과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에 걸쳐 진행된 수중발굴조사 결과, 도자기 및 기타 문화재 22,000여점과 동전 약 28톤, 자단목 1,000여본, 선체파편 등이 인양되었다. 이들 인양문화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자기 가운데 중국 절강성의 용천요에서 제작된 것이 전체의 약 60%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강소성의 경덕진요, 길주요, 복건성의 건요 등지에서 제작된 도자기로 이루어져 있다.

신안 해저 유물 역시 중국 현지의 왕성한 발굴 및 연구성과를 참조하는 한편 관련유적에 대한 현지

⁸ 신안선의 인양경위와 인양 문화재의 개요에 대해서는, 김영미, 국립중앙박물관 편, 『신안선과 도자기 길』(서울: 통천문화사, 2005) 참조.



도 7. <靑磁壺>, 龍泉窯, 14세기, 높이 32.6cm,
국립중앙박물관(신도370, 신도371)



도 8. <靑磁魚龍飾花瓶>, 용천요, 14세기, 높이 15.8cm,
국립중앙박물관(신안6558)



도 9. <靑磁女人像燭臺>, 용천요, 14세기, 높이 19.7cm,
국립중앙박물관(신안20420)

방문 조사와 제작지별 분류연구 성과 등에 의해, 근
자에는 이를 반영한 전시와 도록의 발행 등이 왕성
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의 개관에 즈음하여 간행된 전시실별 도
록의 일환으로 『신안선과 도자기 길』(2005)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2007년 10월에는 경덕진
요에서 제작된 도자기를 중심으로 “경덕진요 청백
자,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라는 테마전시를 통
하여, 유형별 분류와 장식문양을 체계적으로 분류
소개하였다[『경덕진요 청백자, 푸르름 속에 핀 순백
의 미』(2008)]. 이어서 2008년 10월에는 소장품 가
운데 향로에 초점을 맞춘 테마전시를 기획하여, 향
로의 형태와 미적 감각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동야
시아의 향 문화의 전개 양상을 조감하였다[『마음을
담은 그릇, 신안香爐』(2008)].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문화재 이외에도, 국내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와
기증 및 구입을 통해 확보한 것 등 육조시대에서 隋

唐代, 五代, 宋代, 元代的 중국 도자기 약 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들 도자기자료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관련 도요지에 대한 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가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약 200여점의 관련 도자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⁹

4) 가네코 컬렉션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의 신축개관에 즈음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컬렉션 가운데 가장 빈약한 분야였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귀중한 수집자료가 일거에 보충되는 쾌거를 맞이하였다. 일본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가네코 카즈시게 선생이 지난 40여년 동안 아시아 각지를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 1,020건을 기증한 것이다.

가네코 선생은 평생 동안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답사하며 여러 민족들이 창조해 온 조형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에 진력해 왔으며, 수집한 방대한 소장품의 분산을 막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 및 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 등에 이를 일괄 기증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를 기증하게 된 것이다.

가네코 선생이 기증한 아시아 각지의 민족조형품은 그 출처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30여개국에 이르며, 유물의 종류는 선사시대 토기·청동기·유리기 등으로 구성된 고고유물, 불상·불화·經箱·경전·공양구 등으로 이루어진 종교 관련 유물, 도자기·칠기·목제품·직물류·죽제품·의류·식기 등 실생활 유물, 완구·인형·탈·악기 등 기예 관련 유물로 구분된다.

이들 기증품은 모두가 소중한 의미를 지닌 전시 대상이지만, 감상품으로서의 磁器類 등 보다는 아시아 각지의 일반 서민들이 생활용구로 사용하였던 道具類로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漆器類의 경우 지역에 따라 器形이나 제작기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른 종류 또한 다양하여, 세계의 어떠한 컬렉션보다 質과 量에 있어서 뛰어나다.¹⁰

가네코 기증품은 그 제작연도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과거 수세기 동안 변함없는 제작기법과 재료로 만들어진 고유한 민족조형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지의 급격한 현대화에 따른 개발 과정에서 匠人의 제작기법이 끊긴 지금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과처럼 전통기법으로 제작된 물품들을 접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이 가네코 수집품은 현지를 직접 답사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장인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혹은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도자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金英媛,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 陶磁의 內容과 性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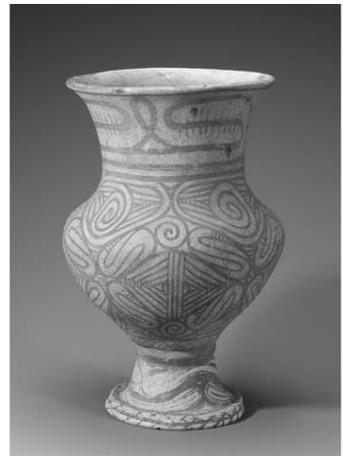
10 가네코 컬렉션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는 줄고, 「가네코 카즈시게 先生의 學問的 遍歷과 그 蒐集品」, 『가네코 카즈시게 기증 아시아 민족 조형품』(서울: 예맥출판사, 2003) 참조.



도 10. <석가여래상 불두>, 미얀마, 16세기, 높이 116.0cm, 국립중앙박물관 (증4301)



도 11. <朱漆金彩供養具>, 미얀마, 19세기, 높이 92.0cm, 국립중앙박물관(증1420)



도 12. <채문토기>, 타이 반치앙, 기원전 1세기, 높이 45.0cm, 국립중앙박물관(증1451)

현지인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생활용품을 직접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관련 박물관의 소장품에 비하여 수집품의 내력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방법 및 재료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가 갖추어져 있어 전시대상으로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03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 “가네코 가즈시게 기증 아시아 민족 조형품” 전시는 가네코 기증품 가운데 逸品 170여점을 소개하여 그 전모를 피력하는 장이었다[“가네코 가즈시게 기증 아시아 민족 조형품 — 金子量重寄贈亞細亞民族造形品”](2003)]. 가네코 컬렉션은 2005년 개관 이래 기증관의 독립된 전시실에서 기증품의 전체 개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를 지속하다가, 2007년 5월에는 중국 남방과 동남아시아의 칠기문화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 칠기전”([“아시아 칠기전”, 국립중앙박물관, A4판형 8면 브로슈어]을 개최하여, 베트남의 나전칠기를 비롯하여 남아시아의 불상, 경상, 경전, 각종 공양구 등 칠기의 다양한 유형과 제작방법 그리고 그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2010년 9월에는 “흙으로 빛은 아시아의 꿈”이라는 주제의 테마전시를 기획하여, 佛과 아시아 각지의 토기, 가면, 토우, 완구 등을 소개하며 각 민족의 생활상과 조형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흙으로 빛은 아시아의 꿈”](2010)].

2012년 3월에는 가네코 컬렉션의 세 번째 테마전시로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개최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목조 생활용품에 반영된 여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조형의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장을 마련하였다[“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 — 金子量重寄贈亞細亞民族木造形”](2012)].

2. 사립박물관의 컬렉션과 전시

1) 화정박물관 등의 티베트 미술 컬렉션

근자에 티베트 미술을 비롯한 불교미술 관련 전시가 구미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1994년 독일 베를린의 인도박물관(Museum für Indische Kunst)에서 개최되었던 전시회 “The Black City on the Silk Road: Buddhist Art from Khara Khoto”에는 西夏의 하라호토 유적에서 출토된 티베트계 불교 미술의 정화가 소개되었고, 이어서 1995년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개최된 “*Sérinde, Terre de Bouddha*”(『세랑드, 부처의 땅』) 전시에서는 세계 각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실크로드의 불교문화재 등 명품이 일거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British Library에서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의 수집품 등을 중심으로 “The Silk Road – Trade, Travel, War and Faith”가 개최되어 둔황 등 실크로드 연변의 유적에서 수집된 다양한 문화재가 출품되었다. 한편 2008년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The Caves of One Thousand Buddhas: Russian Expeditions on the Silk Routes”가 개최되어, 둔황과 투르판을 비롯한 불교유적에서 수집된 유물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탐험성과를 집대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티베트 불교미술 가운데 특히 탕카라고 불리는 불화는 軸으로 된 그림이어서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등 종교문화 수난의 시기에 다수의 작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 이들 작품의 일품은 대부분이 구미의 수집가의 손에 넘어갔으나, 한국의 한빛 문화재단의 설립자 한광호씨는 우연한 기회에 티베트 미술을 접하고 이에 매료되어 평생을 티베트 미술품 수집에 열정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컬렉션은 매년 점증하여 2000년에는 총수 900여점에 이르게 되어, 세계 유수의 티베트 미술 컬렉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광호 컬렉션은 티베트 밀교미술의 핵심인 만다라를 비롯하여 如來, 祖師, 守護尊, 忿怒尊, 보살, 護法尊, 羅漢 등 역사학적으로나 도상학적으로 귀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티베트 미술품은 현재 서울 도심의 북측 평창동에 위치한 화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문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소장 자료의 정리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매년 참신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그 진면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1999년의 개관 전시도록 『티베트의 미술』(화정박물관 편, 서울: 한빛문화재단, 1999)을 필두로, 소장품을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대형 자료집 『탕카의 예술-한광호 수집품, Art of Thangka From Hahn's Collection』(화정박물관 편, 서울: 한빛문화재단)을 계속 간행하고 있다. 『탕카의 예술』은 1997년에 제1집이 발행된 이래 현재 제6집(2012)까지 간행되었으며, 각 도판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상세한 해설을 병기함으로써 소장품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이 컬렉션은 2001년에 일본에서 10개월 동안 5개 도시를 순회하며 “탕카의 세계”¹¹⁾라는 전시로

11 田中公明, 『タンカの世界-チベット佛教美術入門』(東京: 山川出版社, 2001)은 90여점에 이르는 본 전시의 출품작의 개요와 함께 티베트 불교미술의 전체상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설서로 꾸며져 있다.



도 13.
〈아미타여래와 극락정토〉, 티베트,
19세기

소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영국의 British Museum에서도 한광호 컬렉션의 명품을 소개하는 전시 “Tibetan Legacy: Paintings from the Hahn Kwang-ho Collection”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다. 2012년 9월에 개최한 “티베트의 유산” 전시는, 영국에서의 전시품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관련 작품 수집 성과의 일단을 피로한 것이다.

한국의 불교미술은 고려시대의 원나라를 매개로 한 밀교미술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에도 이어지고 있어, 한광호 티베트 컬렉션은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는 화정박물관의 티베트 미술 소장품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옥인동과 전라남도 보성 대원사에 각각 티베트 전문 박물관이 있어, 불화와 불상, 의식용 법구, 복식자료 등 다양한 소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옥인동 소재의 티베트 박물관에는 티베트 승려의 종교복식을 비롯하여 무속인의 복장과 巫具, 그리고 티베트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다양한 직물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이채롭다. 두 박물관 모두 소장 컬렉션을 소개하는 도록 『아름다운 티벳』(신영수 컬렉션, 2000) 『신비의 불교왕국-티베트의 밀교미술』(보성: 대원사 티베트박물관, 2005)을 간행한 바 있다.

2) 기타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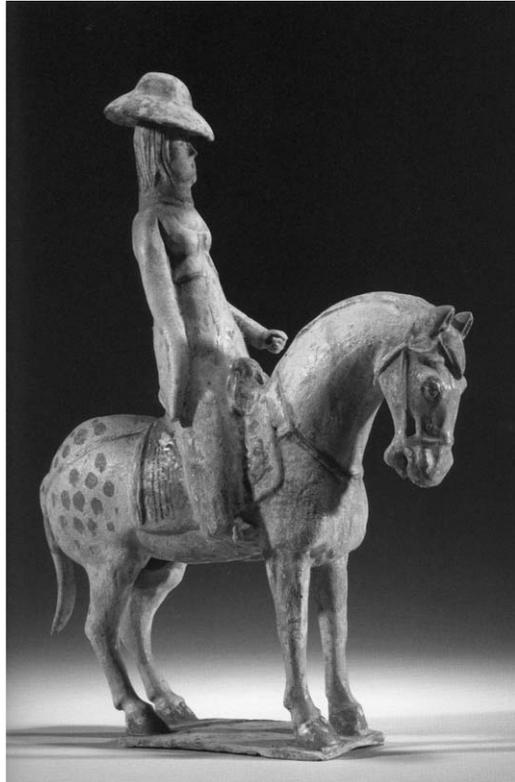
화정박물관에는 티베트 불교미술품 이외에도 중국 명청대의 도자기, 서화를 비롯하여 금속공예품, 상아·목조각, 칠기, 옥공예품 등 기술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장식공예미술의 명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당대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생활환경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중국미술소장품』 제1권·제2권(서울: 한빛문화재단, 2000)].

화정박물관이 평창동으로 이전·개관하며 개최한 특별전시 “아시아를 조용하는 눈”은 당 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티베트 불교미술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 미술품의 명품을 엄선하여 공개한 것이며[『아시아를 조용하는 눈』(2006)], 2011년 5월에 개최한 “중국공예특별전”에서는 淸代の 궁정생활과 귀족들의 기품 있는 삶을 엿볼 수 있는 칠공예품과 범량기, 옥기, 문방구 등 공예미술의 명품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화정박물관이 리모델링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특별전 “LUST”(2010. 9)에서는, 일본의 우키요에 春畫와 중국의 春宮畫帖 등 에로틱 아트를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미술 전시의 외연을 확대하고 화정박물관 컬렉션의 다양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종로구 부암동 소재의 유금와당박물관은 주로 국내의 고대와당과 함께 중국의 고대와당과 陶俑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사립박물관으로 2008년에 개관하였다. 유창중·금기숙 관장 夫妻는 평생 동안 수집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와당 및 전돌 1873점을 2002년 9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2002년 12월에 개최된 특별전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은 그 기증의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품 가운데 중국와당 132점,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와당 21점을 포함한 392점이 소개되었다.

유금와당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로는, 2010년 12월에 개최한 “中國六朝瓦當”과 2011년 10월에 개최한 “中國魏晉北朝時代瓦當”을 들 수 있으며, 도용을 소개한 것으로는 2009년 5월의 “도용: 매혹의 자태와 비색의 아름다움”이라는 전시에서, 도용의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시대별로 개관하고, 이를 통하여 당대 주민들의 삶을 유추해 봄과 동시에 복식에 나타난 동서문화 교류의 흔적을



도 14. 《彩釉騎馬女俑》, 西安, 6-8세기

정리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1년 5월에는 특별전 “도용: 中國兩晉南朝時代”를 개최하고, 이어서 2012년 6월에는 “도용: 中國魏晉北朝時代”을 개최하여, 두 전시의 성과를 정리한 도록 『中國魏晉南北朝時代 陶俑』(2012)을 간행한 바 있다.

한편 근자에는 인도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문화기관이나 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이에 따른 기획전시의 개최 등이 학계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7월 1일에는 한남동에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원하였으며, 이어서 다음날 7월 2일에는 서초구에 인도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인도박물관은 시인이자 타고르 연구가로서도 명성이 높은 김양식 씨가 평소 인도를 내왕하며 수집한 조각, 공예, 악기 등 천여 점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2012년 9월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회화로 만나는 인도 신들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대표적인 소장품 180여점을 게재한 도록 『인도박물관 소장품 도록』(2012. 9)을 간행하였다. 인도의 詩聖 타고르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의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타고르의 회화” 역시 국내의 인도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추진된 것이었다.

이밖에도 원주 치악산 명주사의 고관화박물관은 韓中日을 비롯하여 티베트, 몽골, 인도, 네팔 등의 고관화 관련 유물 3,500여점을 소장하고 있어, 기획전시와 심포지엄의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Ⅲ. 아시아 미술 전시

1.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시아미술 전시 가운데 인국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1992년의 양국 국교 수립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박물관이나 각 省의 대표 박물관들과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실로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시를 통하여, 화북지역과 화남지역을 비롯하여 서북의 건조시대 등 다양한 풍토 하에서 배양된 중국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중국 고대회화의 탄생”(2008. 7)은 중국국가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화상석에 나타난 회화적 요소를 학술적으로 정리 연구하여 그 성과를 피로한 것이다. 그리고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2009. 6) 전시는 한국국영방송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의 방영을 계기로, 중국 남방과 티베트를 잇는 옛 무역로의 기능과 그 문화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전시는

중국 남방문화의 특성과 근자에 각광을 받고 있는 서남 실크로드에 중점을 두고 국내의 관련 컬렉션을 망라하여, 소위 차문화의 고향 운남지역의 문화가 지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는 내용이기도 하였다.¹²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한중 양국 사이에 전개되었던 활발한 문화교류는 특히 2007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박물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아시아 국립박물관장 협의회(Asian National Museum Association, ANMA)의 출범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립박물관의 상호 인적교류와 전시교류 등 문화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제국과의 국교수립에 따른 활발한 문화교류 사업이 추진된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관련전시 개최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상의 유적과 출토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수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문화교류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최되었던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을 비롯한 5개 국립기관의 소장품 가운데, 선사시대에서 현재의 이슬람문화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개관할 수 있는 일품으로 구성된 전시였다. 특히 이 전시에는 우즈베키스탄 남단의 테르메즈 지역에서 출토된 초기 불교문화재와 아무다리아 중하류 유역의 조로아스터교 문화를 상징하는 납골기 ‘웃스아리’가 대거 출품되어, 동서문화 교류의 핵심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위상과 지리적 특색을 잘 드러내었다.

본 전시의 출품 작품 가운데에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7세기 중엽의 한국인 사절의 모습이 묘사본으로 공개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발굴 당시에 제작된 이들 묘사본은 이제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성사될 수 있었다. 아프라시압 유적 근처에 세워진 박물관에는 당시 발굴된 벽화가 전시되어 있으나, 한국인 사절을 비롯하여 벽화의 인물 묘사에 사용되었던 안료의 많은 부분이 박락된 상태여서, 묘사본 제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관을 신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 컬렉션이 가장 빈약한 동남아시아권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현지 국립박물관과의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개관할 수 있는 전시 “인도네시아 미술”을 개관 당시부터 2년 동안 상설 전

¹² 서남 실크로드의 기능과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시도록의 줄고, 「유라시아의 西南 실크로드 ‘茶馬古道」, 『차마 고도의 삶과 예술』(서울: 국립중앙박물관회, 2009) 참조.

시하였으며, 이어서 베트남과도 같은 성격의 전시를 기획하여 “베트남, 삶과 문화”를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국가별 문화교류 사업과 이에 따른 전시개최와는 별도로, 아시아에 병존하였던 다양한 문화권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문화권별 기획전시의 개최와 동서문화 교류라는 거시적 시점에서 아시아 문화를 상호 유기적 관련성에 입각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조감하고자 하는 전시 또한 다양하게 개최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아시아 미술 전시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근자의 전시 가운데 아시아의 중요 문화권을 심층적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 대형전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2008. 4~8)를 들 수 있다. 이 전시에는 이란 국립박물관 소장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에 이르는 시기의 황금유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토기와 화려한 공예품 등이 출품되어, 전근대 아시아 문화의 주축을 형성하였던 서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였다.

동서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의 원류를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전시로는 “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국립경주박물관: 2008. 9~11), “실크로드와 둔황”(2010. 12~2011. 4)을 들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 문명전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된 “실크로드와 둔황”은 과거 실크로드(오아시스 루트)의 핵심지역에 해당하는 현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간선지역인 감숙성과 영하회족자치구에서 근년에 발굴된 중요유물 180여건을 전시함으로써, 실크로드의 기능을 유추해보고 초원과 오아시스 세계의 구체적인 생활상과 함께 양 문화권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근자에 개최된 전시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블록버스터급 전시였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북방의 스키토 시베리아문화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문화교류의 실상을 극명하게 부각시켰으며, 아울러 중국의 남북조시대에서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의 교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실크로드의 국제상인 ‘소그드’인의 실체와 그 문화를 부각시킴으로써, 당시의 동서문화 교류의 실상과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고대 한국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조명을 가하였던 의미 깊은 전시였다.

이와 같이 근자에 동서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한국문화를 너무 좁은 시야에서 조감하여 왔던 연구나 전시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 여겨진다.

한편 문명전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서 개최된 “이스탄불의 황제들”(국립중앙박물관: 2012. 5. 1~9. 2, 부산박물관: 2012. 10. 9~2013. 1. 27)은, 터키의 톱카프궁 박물관과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아나톨리아에서 꽃피었던 히타이트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동서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던 튀르크 이슬람의 세계제국 오스만 튀르크의 궁정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전시였다. 국내의 아시아사 연구나 고고미술을

비롯한 문화사 연구에 있어 이슬람학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현장이나 매스컴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왜곡과 몰이해는 아시아 문화사와 세계 문화사의 일환으로서의 이슬람 문화 이해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시의 주안점은 역대 술탄의 화려한 궁정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공예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청자와 청화백자 등이 이슬람의 금속공예 기술과 접목되어 독특한 문화변용을 표출한 전시품은 그 백미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톱카프공의 화려한 궁정문화는 동서교역과 문화교류의 상징이며 이는 회화를 비롯한 당시의 여러 예술품과 건축예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그리고 카펫이나 타일 등의 문양을 통해 이슬람의 종교관과 내세관을 엿볼 수 있어, 이슬람 문화의 포용력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 지방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기획전시

전술한 바와 같이, 1992년의 韓中 국교 수립 이후, 지방의 국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에서도 중국의 유관 省 박물관 등과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연합전시도 추진되는 등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교류가 일층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시 “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2008. 9~11)는 신라의 문화를 페르시아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당시 활황을 띠고 있었던 실크로드의 맥동에 실어 거시적으로 조감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음미해 보고자 하는 성격의 전시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서아시아 전문 박물관인 일본 동경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박물관, MIHO 뮤지엄의 관련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각 대표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동서문화 교류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 획기적인 전시로 평가된다. 신라의 수도 경주는 실크로드의 종착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의 세련된 금속공예 기술이나 문양 등이 경주 일원의 다양한 문화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전시는 고대 한국이 활발한 대외문화교류를 통하여 외래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변용시켜 독특한 성격의 지역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 고대 한국인의 예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2년 4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唐代 명품전”은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문화교류의 질적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국제도시 장안의 풍모와 당시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전시였다. 서안의 섬서역사박물관에서 2012년 9월에 개최된 “한국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명품전”은 양 박물관의 교환전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황금유물과 유리기를 비롯한 명품 70건 327점이 출품된 바 있다.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전시(2012. 7. 31~10. 28) 역시 해양문화교류를 기획전시의 중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 동서 해양문화교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과 교섭하여 유치한 기획전시로, 인도네시아의 고대 금속공예의 일품들을 통해 동남아시아 문화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자매관 교류 5주년과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국 浙江省 박물관의 명품을 선보인 특별전 “절강성의 보물”(2012. 9. 25~11. 25) 역시 전술한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국립제주박물관의 특별전과 동일한 취지 하에 개최한 것으로, 선사시대 유물을 비롯하여 불교미술, 도자기 회화 등 명품 200점을 소개하였다. 전시품 가운데 西晉 시대의 <越窯靑瓷堆塑罐>은 불교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중국에 전래되었음을 전하는 한편, 불교 南傳과 불교 토착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유물이다. 금년 12월에는 교류전시의 일환으로 “신안해저문물과 강진 고려청자”(2012. 12. 18~2013. 3. 3) 전시가 절강성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공립박물관의 경우 경기도박물관과 부산박물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몽골, 중국 운남, 중국 광둥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더불어, 광둥성 박물관, 상하이 박물관, 심양 고궁박물관 소장품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3. 기타 전시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국공립박물관의 관련 컬렉션 또한 충실해지고 있으며, 사립박물관 역시 전문분야 컬렉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 시도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 개인이 근현대의 미술사에 뚜렷이 남긴 족적을 재조명해 보는 전시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6년 4월에 개최되었던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던 폴 자쿨레(Paul Jacoulet, 1896~1960)의 유작을 기증받아 개최한 것으로,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서양인의 시점으로 바라본 동양의 이색적인 풍모와 다양한 인물군상을 165점의 판화에 담아 소개한 것이다.

조선족 화가로서 중국 근대의 회화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후 키질과 막고굴 등 피폐해진 실크로드의 석굴사원 벽화를 모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력하였던 韓樂然의 유작전이 서울에서 1993년(예술의전당)과 2005년(덕수궁미술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사막에서 잠자고 있었던 석굴사원의 벽화에 생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던 한락연의 활약상은, 석굴의 벽화 등을 모사한 유화와 오아시스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묘사한 수채화를 통해 그 진면

목을 접할 수 있었다.¹³

IV. 전시도록

이하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다양한 주제의 아시아 미술 전시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박물관과 공·사립박물관의 대표적인 관련 전시 성과를 담은 도록을 분야별로 간단히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재 내용은 전시(도록) 명칭, 개최지(또는 편저자), 도록의 발행처, 발행연도 순이다.

단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스키타이 황금” 전시나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 “유라시아 문화, 만남으로의 여행전” 등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나 민속학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전시일지라도, 이를 문화사적으로 접근을 도모한 전시의 경우 목록에 포함시켰다.

1. 문화권 소개 및 문화교류 전시

-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스키타이 황금』,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조선일보사, 1991. 9.
- 『실크로드 美術』,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한국박물관회, 1991. 9.
- 『청자의 색과 형』, 조선관요박물관 편, 광주(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5. 4.
- 『화정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아시아를 조응하는 눈』, 서울: 화정박물관, 2006. 5.
-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2008. 4.
- 『新羅, 서아시아를 만나다』, 국립경주박물관 편, 서울: Workroom, 2008. 9.
-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회, 2009. 6.
- 『유라시아 문화, 만남으로의 여행』,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0. 11.
- 『실크로드와 둔황: 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 12.
-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 서울: 예술의전당, 2011. 12.
-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2. 5.

¹³ 중국 화단에서의 한라연에 대한 평가 작업은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7년 4월에는 深圳에서 대규모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한라연 관련 국내전시 및 중국 심천의 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줄고, 『둔황학의 어제와 오늘』, 나가사와 카즈토시 저, 민병훈 역, 『둔황의 역사와 문화』(파주: 사계절, 2010), pp. 297~298 참조.

2. 국가별 문화 소개 전시

- 『일본미술명품』,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솔, 2002. 5.
- 『인도네시아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시월, 2005. 10.
- 『인도의 불교미술 —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편, 서울: 사회평론, 2006. 1.
- 『39개 박물관에서 온 漢·唐시대 국보 325점: 中國 국보전』,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 솔대, 2007. 5.
-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workroom, 2008. 3.
- 『동서 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비에이디자인, 2009. 11.
-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부산: 부산박물관, 2010. 9.
- 『2010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KRD(Korea-Russia Dialogue) 편, 서울: 고려대학교 러시아CIS 연구소, 2010. 9.
- 『청정무구淸淨無垢 부탄』,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0. 12.
-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대唐代 명품전』, 국립경주박물관 편, 서울: 디자인공방, 2012. 4.
-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12. 7.
- 『인도박물관 소장품도록』, 서울: 인도박물관, 2012. 9.

3. 지역문화 소개 전시

- 『중국 돈황 대벽화』, 서울: 동아갤러리, 1994. 7.
- 『중국낙양문물명품』,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8. 11.
-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대전』, 용인: 경기도박물관, 1999. 6.
- 『간다라 미술』, 서울: 예술의전당, 1999. 6.
- 『히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6.
- 『중국 운남 민족문화전』, 용인: 경기도 박물관, 2005. 10.
- 『탐라와 유구왕국』,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07. 7.
-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그래픽네트, 2007. 10.
-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부산: 부산박물관, 2009. 3.
-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위너지, 2009. 5.
- 『평화와 번영, 에도시대 이시카와 문화전』, 국립전주박물관 편, 서울: 디자인문화, 2011. 10.
- 『일본 비와호琵琶湖 지역의 불교미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1. 12.

- 『절강성의 보물』, 국립광주박물관 편, 서울: 비에이디자인, 2012. 9.

4. 특정 주제별 전시

- 『西安碑林』, 서울: 연세대학교박물관, 1998. 5.
- 『광동성박물관소장-중국역대도자전』, 용인: 경기도박물관, 2000. 10.
- 『일본의 불교미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03. 12.
-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주자소, 2006. 8.
- 『중국칠기의 美』, 북촌미술관 편, 서울: GOHO Art Books, 2007. 6.
- 『상하이 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 부산: 부산박물관, 2007. 6.
- 『중국 불교조각 1500년 불상, 지혜와 자비의 몸』,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10.
-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11.
- 『明清代 인물화』,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2008. 4.
- 『중국 고대회화의 탄생』,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통천문화사, 2008. 7.
- 『오래된 만남-한국과 일본』, 부산: 부산박물관, 2008. 9.
- 『심양고궁박물관 소장 淸 황실보물전』, 용인: 경기도박물관, 2008. 10.
- 『發見-동아시아의 총포』, 포스코미술관, 2009. 1.
- 『傳·統 중국 직물의 태동과 역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9. 2.
- 『도용: 매혹의 자태와 비색의 아름다움』, 서울: 유금와당박물관, 2009. 5.
- 『중국국가박물관 명품그릇전 맛을 담는 그릇의 멋』, 부산: 부산박물관, 2009. 9.
- 『LUST』, 서울: 화정박물관, 2010. 9.
-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0. 10.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 12.
- 『中國魏晉北朝瓦當』, 서울: 유금와당박물관, 2011. 10.
-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샤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1. 11.
- 『흙을 빚어 옥을 만들다, 용천청자』, 부산: 부산박물관, 2011. 12.
- 『아시아의 전통복식』,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2011. 12.
- 『中國魏晉南北朝時代 陶俑』, 서울: 유금와당박물관, 2012. 6.
- 『吉祥,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2. 7.

5. 컬렉션 소개 전시

- 『中央아시아美術』, 國立中央博物館 편, 서울: 三和出版社, 1986. 8.
- 『실크로드에 담긴 朝鮮族의 藝術魂 - 悲運의 天才畫家 韓樂然 遺作展』, 예술의전당 미술관 편, 서울: KBS문화사업단, 1993. 2.
- 『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중국탈: 김학주 교수 기증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2. 10.
-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통천문화사, 2002. 12.
- 『가네코 가즈시게 기증 아시아 민족 조형품』,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예맥출판사, 2003. 7.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西域美術』,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한국박물관회, 2003. 12.
- 『중국 조선족 화가 한락연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편, 서울: 컬처북스, 2005. 8.
- 『아시아의 색채 풀 자쿨레 판화』,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고호출판사, 2006. 4.
- 『경덕진요 청백자,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사회평론, 2007. 10.
- 『일본 미술의 복고풍』,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사회평론, 2008. 5.
- 『마음을 담은 그릇, 신안香爐』,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사회평론, 2008. 10.
- 『일본 근대 서양화』,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사회평론, 2008. 11.
- 『고판화박물관 소장 옛 아시아 판화전』, 청원: 청원군립 대청호미술관 · 원주: 고판화박물관, 2009. 2.
- 『흙으로 빛은 아시아의 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0. 9.
- 『와세다대학에서 온 일본의 고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2010. 10.
- 『타고르의 회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1. 9.
-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2. 3.

V. 結語

이상으로 국내에 있어서의 아시아미술 컬렉션의 실태와 관련 전시의 개최상황을 1990년대 이후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 등 구 공산권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관련 문화재 전시 등 구체적인 문화교류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약 20여년에 불과한 이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문화재 애호가들에 의해 아시아의 특정 지역 문화나 특정 주제에 천착한 컬렉션 수집이 본격화되었던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한 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 시기는 우리의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여,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며 외국 유수의 박물관 등 문화기관 소장의 관련 작품을 대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각 지역의 대표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2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구미 열강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문화재 반출의 결과 세계 대표적인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아시아 미술 컬렉션 역시 간헐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아시아 미술사를 필두로 하는 동양학이 중국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었던 학적 불균형에 대한 자성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역사적·지리적 다원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나 박물관 등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고, 관람객 등 수요자들의 요구 또한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시아 미술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 컬렉션이 다양한 주제로 소개됨에 따라, 아시아에 병존하는 다양한 문화권과 민족 그리고 종교문화 등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추진하였던 아시아 미술 기획전시는 자연히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본격적인 쌍방교류에 의한 교환전시 등 새로운 문화교류의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인적교류와 학술정보 교환 등을 통해 아시아 각 지역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되었다.

특히 근년에는 아시아 제 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뿐만 아니라 남미나 동구 등 여러 지역으로부터도 교환전시에 관한 적극적인 제안을 받고 있으며, 구미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도 대규모 한국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또한 그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실 개설을 위한 협력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시아 미술 컬렉션의 질이나 기획전시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점이 결코 적지 않다. 우리의 교육현장이나 매스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슬람 문화 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조차 별반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아시아문화나 남아시아문화 그리고 북방의 유목문화 등 이제까지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왔던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의 전시를 통한 문화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에 관한 연구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상대 국가와의 공동조사 등을 통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작업을 토대로 학적 연구 성과가 반영된 기획전시의 추진 등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대외적으로 편협한 문화인식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아시아 미술 컬렉션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컬렉션 자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컬렉션 자체의 질적인 면에 있어

서도 편차가 매우 심한 문제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아시아 미술을 접하고 감상하는 것은 아시아 각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우리의 문화를 거시적으로 재음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문화재를 둘러싼 국경이 점차 높아만 가는 현 상황에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아시아 제 문화권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개하고 또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무계획적인 문화교류와 문화재의 수집, 근시안적인 일과성 학술 조사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도외시한 적당주의가 지속되는 한, 문화재 전시를 필두로 한 아시아 제 지역과의 문화교류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아시아 인류학 박물관 등 관련 전문 박물관의 탄생 또한 요원할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 컬렉션, 일본 근대미술품, 신안 해저 유물, 가네코 컬렉션, 티베트 미술 컬렉션, 전시도록

Asian Art Collections and Exhibitions in Korea

Min Byung-hoon*

1. Introduction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view pre-modern Korean culture exclusively as part of a larger East Asian culture encompassing China and Japan, tied together by Confucianism, Buddhism, and Chinese characters. This emphasis on Chinese culture is not surprising when we consider Korea's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culture and history. Such a strong emphasis on China, however, has often resulted in a distorted view that overlooks the diverse cultures coexisting in the history of Asia.

Asia is highly divergent both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Because race, language, and religion vary widely across regions, it is more difficult to develop a comprehensive view of Asian history and culture.

Fortunately,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cademic associations devoted to the study of Asian culture and histor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scholarships based on primary textual and archaeological sources recorded in the local language, bringing a more balanced view to the understanding of Asian cultur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present Asia's cultural diversity for the public would be to explain it through cultural artifact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in which they were produced.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played a part in creating public knowledge alongside the increasing number of specialists from academic institutions. The re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ost-Soviet states in Central Asia in the early 1990s brought about a renewed interest in the cultures of these regions. Public museums in Korea were able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Chinese museums and introduce the rich regional traditions of China, providing us with an opportunity to systematically study a wide array of regional cultures including those of Inner Mongolia, Liaoning, Yunnan, Tibet, and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recent opening of the Asian gallerie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conjunction with its new building in Yongsan, Seoul, in October 2005, expedited the process even furthe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department of Asian art reflected the museum's intention to display the diverse cultural interactions with surrounding cultures in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rough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It would bring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cultural histories coexisting in Asia and a broader view of Korean culture in the context of cultural interactions.

The new Asian gallerie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Yongsan, mark the first specialized Asian galleries in the museum's histor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specialists for each gallery were consulted well in advance to ensure efficient preparations for the opening. The Asian galleries include Central Asia, Japan, China, South and Southeast Asia, and the Sinan Shipwreck Collection.

2. Asian Art Collections in Korea

1)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 The Central Asian Collectio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Central Asia became the arena for competition between western powers. Russia, Britain, Sweden, Germany and France all rushed to the region, sending out expeditions to collect information useful for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However, when ancient texts and artifacts of great academic value began to be excavated in the desert area of the Tarim Basin and came to be of academic value, the nature of the expeditions gradually changed to become academic researches on the region's geography and history.

Otani Kozui, the 22nd Abbot of the Nishihonganji sect in Kyoto, was in London when the race to excavate in Central Asia began. On his way back to Japan, Otani personally explored western China, and later financed two archaeological expeditions to Central Asia. The research conducted by the Otani Expedition between 1902 and 1914 were published in detail in *Illustrated Archaeological Study of the Western Regions (Seiiki Kōko Zufu, 1915)*. But because his expeditions were personally funded, unlike the government-sponsored Western expeditions, Otani soon found himself in the middle of a financial crisis and was forced to abdicate. This led the wide range of objects collected during Otani's expeditions to be scattered in different

locations, even before they were labeled and studied.

The artifacts that remained with Kozui during his exile in China were housed in Lushun Museum, Dalian, China. The rest were sent to the National Museum in Tokyo an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in Seoul. The collection was given to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in 1916 and continued to be on display at Sujeong-jeon in Gyeongbokgung Palace until Korea's independence. The Otani collection in Seoul consists of 2,000 objects, including wall paintings from cave temples, everyday objects from the oasis cultures in Central Asia, and burial objects. The museum managed to secure the collection safely during the Korean War.

(2) Modern Japanese Ar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198 Japanese modern art works that were colle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y include 93 Japanese-style paintings, 37 western-style paintings, 4 prints, 20 sculptures, and 44 craft objects. In 1938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oved the Yi Royal Household Museum in Changkyeonggung Palace to a newly built art museum building located in Deoksugung Palace. The Seokjo-jeon hall in Deoksugung Palace had been the venue for exhibitions of modern Japanese art since 1933; these were merged with the collections at the Yi Royal Household Museum to be housed in the new Yi Royal Household General Art Museum. Until Korea's independence in 1945,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trategically purchased and exhibited Japanese art in order to display the superiority of Japanese art to the Korean art world and audience.

Like the Central Asian collection, these works of modern Japanese art stayed in the National Museum collection after the Japanese withdrew from Korea in 1945. Because most of the Japanese artwork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were winners of major art competitions in Japan from the 1930s to the early 1940s, they include famous names from modern Japanese art history. They have been preserved remarkably well because strong anti-Japanese sentiments after the independence prevented these works from being displayed in public. The craft objects in particular are noteworthy because there are no contemporary craft objects in Japanese collections. These works are from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Japanese artists were striving to incorporate the modern with the traditional; these works also serve as important time capsules for studying Japanese art history.

(3) Sinan Shipwreck Collection

The Silk Ro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path of trade and cultural transmissions across the Eurasian continent. The maritime Silk Road routes (sea route) compensated the land Silk Road routes (oasis route). The sea route is often called the "Ceramic Road," as the development in shipbuilding and navigation technologies allowed large bulks of ceramic wares to be transported over the sea. Dynamic trade activities along the sea route from China to the Islamic empires in Western Asia extended even to Korea and Japan via Southeast Asia and the southeastern coast of China during the Yuan Dynasty (1271-1368).

In 1323, an international trade vessel, loaded with various trade goods including ceramics, departed from the port of Ningbo in China. On its way to Kyoto, however, it sank in the coastal waters of Sinan, Jeollanamdo, Korea. In 1975, the discovery of a celadon vase by a local fisherman led to the ship's excavation.

The excavation of the ship, now called "Sinan-sun" after its location, was the first underwater archaeology project to be executed in Korea. The discovery of the ship raised increased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s that took place along the sea trade routes, and more underwater excavation projects were conducted near the Wando, Doripo, Biando, and Taeanbando islands in Korea. With the discovery of Sinan-sun, the sea trade routes in East Asia could now be understood in the larger framework of a pan-Asian network. The artifacts found in the ship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trade and everyday life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Underwater excavations were conducted eleven times during the period of nine years from 1976 to 1984. 22,000 ceramic and other objects, 28 tons of coins, 1,000 rosewood objects, and fragments of the ship were excavated. 60% of the ceramics were Longquan wares from the Zhejiang Province in China, followed by those made in Jingdezhen, Cizhou, and Jun.

(4) Kaneko Kazushige Collection

The Southeast Asian collection was one of the National Museum's weakest col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of the new building in 2005, however, the museum was able to acquire an important collection from Kaneko Kazushige, who donated to the museum 1,020 objects he had collected in Asia for the past 40 years.

Kaneko had spent all his life traveling in Asia, conducting researches and collecting works of various cultures. To prevent his collection from being dispersed and to ensure their conservation, researches and exhibitions, he decided to donate the entire collection to a single

museum that could represent a nati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as chosen.

The objects in the Kaneko Kazushige collection can be traced to over 30 countries in East Asia, Central Asia, West Asi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he wide range of objects include archaeological objects (prehistoric earthenware, bronze, and glass), Buddhist sculptures and paintings, texts, ritual objects, ceramics, lacquerware, woodwork, textiles, bamboo objects, clothing, everyday ceramics, toys, dolls, masks, and musical instruments.

2) Private Museum Collection and Exhibition

(1) The Tibetan Collection at Hwajung Museum

The Tibetan *thangka*, or Buddhist painting, is commonly found in collections outside of Tibet because of its portability; during historical events that threatened the production of religious art, the Cultural Revolution for example, many paintings were taken out of China. Most of them ended up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llections, but Kwang-ho Hahn, the founder of the Hahn Cultural Foundation in Korea, became fascinated by Tibetan art after a chance encounter. Since then, he has devoted his life to collecting Tibetan art. The Hahn collection has been expanding every year; the number of objects belonging to the collection reached 900 objects in 2000, making it one of the strongest Tibetan art collections in the world. The Hahn collection includes mandalas, which were central to the practice of Tibetan Esoteric Buddhism, as well as images of *Maitreya*, *Bodhisattva*, *Idam*, *Mahakala*, *Dharmapala*, and *Arhats*, all valuable both in terms of history and iconography.

The Tibetan objects from the Hahn collection are now housed in Hwajeong Museum, which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in Pyeongchang-dong. Specialist curators are in charge of surveying and researching the collection, as well as planning the museum's annual public exhibitions on Tibetan art. Hwajeong Museum has also been actively engaged in publishing the collection, beginning with *Art of Tibet*, the museum's opening exhibition catalog published in 1999. *The Art of Thangka*, an annual report on the museum's collection, has reached its sixth volume (published in 2012)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1997. (*The Art of Thangka from Hahn's Collection*, vols. 1-6, Seoul: Hahn Cultural Foundation, 1991-2012).

(2) Other Collection

In addition to its excellent collection of Tibetan art, Hwajeong Museum houses works of calligraphy, paintings and ceramics from the Ming and Qing periods. The museum also holds a

large collection of Ming and Qing decorative arts such as metalwork, ivory and wooden sculptures, lacquerware, and jade objects, providing important documents of everyday life and culture during the Ming and Qing periods (*Chinese Art Collection of the Hahn Cultural Foundation*, vols. 1-2, Seoul: Hahn Cultural Foundation, 2000).

Yoogeum Museum, located in Jongno-gu Buam was opened in 2008 as one of the specialized museums that mainly collect Korean and Chinese ancient roof-end tiles. Yu Chang-jong and Kum Gi-sook's lifelong collection of 1,873 pieces of roof-end tiles and tile, from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was donat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ptember 2002. A special exhibition of "Gift of Yu Chang-jong's roof-end tile and tile" was held in December 2002 to honor the donators. 392 pieces were introduced, including 132 roof-end tiles from China and 21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Indian Art Museum was opened in July1, 2011 by Kim Yang-sik, a poet and also a renowned researcher of Tagore. Thousands of pieces were collected including sculpture, crafts, and musical instrument, etc. In September 2012, as a celebration of museum's one year anniversary, "The Gods of India" was held as a special exhibition. In addition, the *Indian Art Museum Collection* of 180 representative pieces was published.

Above this, Woodblock Prints Museum located in Chiak Mountain, Wonju, houses over 3500 antique pieces related to woodblock prints from Korea, China, Japan, and Tibet, Mongolia, India and Nepal. The museum holds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special exhibition and symposium.

3. Asian Art Exhibitions in Korea

As I have noted above, active scholarly and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other public museums, as well as between the National Museum and provincial museums in China, have taken place since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This has led to many special exhibitions on varying themes from Chinese history and culture.

These exhibitions have enabled us to focus on the regional diversities developed from the various cultural and natural climates in China, including the north, south, and the arid region of the northwest, and to better understand the diverse cultures and peoples that constitute Chinese culture.

Similarly,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and the new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 Central Asia have led to more active cultural exchanges. Related exhibitions have open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a training program for specialists has been initiat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more effectively the archaeological sites and artifacts found along the Central Asian Silk Road.

A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egan to operate its newly established Asian galleries, collaborative exchanges with museums outside of Korea helped to compensate for the museum's relatively weak Southeast Asian collections and more effectively introduce Southeast Asian culture to the Korean audience. *Art of Indonesia*, the result of such collaborative efforts, was on view for two years after the opening of the new museum building in 2005 and provided an overview of Indonesian history and culture. The following exhibition *Vietnam: Life and Culture* was another collaborative project, and was on view from March 2008 to January 2010.

The two exhibitions mentioned above can be seen as part of cultural exchange programs between nations. Other exhibitions of varying nature show the recent tendencies in Asian art exhibitions in Korea: while special exhibitions on certain cultural regions have concentrated on introducing each of the diverse cultures that have coexisted in Asia, some have taken a holistic approach, focusing on cultural interactions in Asia and the link between the East and West.

Such proliferation of exhibitions focusing on the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the East and West can be seen as one of the recent effort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of studies or exhibitions based on a narrow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4. Conclusion

In 1990s, Korea established full-scale diplomatic relations with countries in communist bloc such as Russia and China, and at this point, specific cultural exchanges such as related exhibition of cultural property began to revitalize. It is true that within past 20 years these efforts left remarkable results. And around this point, collections on a specific topic or regional culture of Asia seem to begin in earnest before and after this point.

In addition, in this period, our national power has risen rapidly which brought a time when we introduced collections from foreign, distinguished museums. And through this

process, not only the objects from Asian museums, but also cultural properties taken out by the Western powers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ere recognized.

Part of such tendency is due to criticism on the Chinese-oriented academic imbalance in the domestic oriental studies, as well as Asian art history. Scholars of academy and museums have now begun to expand their interest to the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diverse world of Asian cultures, which is also in following the wishes of general civilians. This has resulted in many Asian art-exhibitions, held under various topics, helping to shed light on the colorful world of Asian cultures, people, and religion.

Moreover, these special exhibitions of Asian art, held in cooperation with various Asian countries, have naturally contributed in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of our own cultural heritage. This has opened new doors for cultural exchange and some attempts at bilateral exhibitions based on a full-scale exchange. One collateral benefit was that, through exchange of personnel and academic data among professionals, we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creating people's network with the other Asian countries.

Recently, curators from not only the best museums in Asia but also from those in South America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re actively approaching us with proposals for bilateral exhibitions. Some of the representative museums in the west are planning large-scale exhibitions of Korean art and some are asking for our assistance in renovating their existing Korean collection for a more effective exhibition.

However, with all the short-term success we have enjoyed so fa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left to be solved, including bettering collection quality and incorporating more diversity in special exhibitions. It is true that Koreans are holding a prejudice against Muslims in all fields, including education and mass communication. In fact, few attempts are made today in order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Islamic culture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ocal cultures, including those of west, South Asia and the northern nomadic tribes, we need to be more active in promoting cultural exchange with these regions through exhibition events. In addition, we need to nurture more specialists on these regions and actively build research archive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s. More emphasis should be laid in holding special exhibitions which reflect research results based on such fundamental studies.

We, in our present situation, are bound by cultural prejudices and our Asian art collection may provide a solution to overcome our narrow views on culture. However, our collection is still too heavily focused on a few local area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level of quality of our

collection is far from being balanced.

Studying and appreciating Asian arts offers not only a key to understanding the various forms of life and culture of these people but also an important chance to grossly re-estimate our own culture.

Recent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approach foreign cultural artifacts. Therefore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we build a system which can systematically collect cultural artifacts from all Asian cultures, introduce these relics to the public, and raise professional researchers specializing in these particular regions.

If we maintained our present reckless course, collecting relics and promoting exchange with a short-sighted and careless manner, conducting shallow research, and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raising experts, we have little hope in gaining a solid result from our exhibitions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Asian countries. It would be even more difficult to build any reliable museums specializing in Asian culture, such as museum of Asian anthropology.

Key words: Asian art, National Museum of Korea, Central Asian collection, modern Japanese art, Sinan Shipwreck collection, Kaneko Kazushige collection, Tibetan collection, exhibition catalogue